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몇차례 개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열명의 제자들에게 동시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동안 여인들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글로바 일행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허탄한 소리 그만하라'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최종적으로 확증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때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인사의 말씀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36,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놀랜 제자들을 달래며 '나야, 나 걱정하지마!' 하셨을 수 있어요.

또 사무엘상 25:6,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2.구약시대에 샬롬이라는 인사는 일상적인 인사였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잘 있었니? 안녕하니?' 정도로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3.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잘 살펴보니,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19절이 말씀해 줍니다. 19.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닫았더니[(헬라이어) 클레이오] 문을 close/닫았다가 아니라, 문을 lock했다/잠궜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가 두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여러가지 바쁜 일, 어려운 일, 두려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문이 퐁퐁 닫혀서 지내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3년동안을 동고동락하며 따랐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했었으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첫번째로 건내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땅끝으로 가라! 일해라, 선교해라'라는 말씀도 아니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경공부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 때 제자들의 첫 반응이 어땠을까요?' 물었더니,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음... 제자들의 첫 반응은 아마도, "앗, 깜짝이야!@#!!"

왜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왜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깜짝 놀라기도 했겠지만, 분명 죄책감도 컸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습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까? 주님과 끝까지 함께했습니까?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주님

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었어요.

이렇게 부활에 관한 모든 기사는 일단 두려움으로 시작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요. 어쩌면 우리들은 모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이 우리를 매일 괴롭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왜 우리에게는 평강이라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요?

몇 년 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인 빨리빨리 베스트 10’을 뽑은 적이 있어요. 이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외국인의 눈에 얼마나 경이롭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몇가지만 살펴보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 컵 잡고 기다리기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달힘’ 버튼 누르기

\*3분 기다려야 하는 컵라면 3분도 되기 전에 뚜껑 열기

\*웹 페이지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달아버리기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매한 뒤 먼저 마시고 계산하기.

우리는 참 기다리기 어려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구요, 어떨땐 바보 같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도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고 있는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조급하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것, 큰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아요. 그것 지키느라 더 조급하고, 더 두렵고, 더 걱정이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세상과 화목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주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한 자족은, 그러려니 하고 대충 살라는게 아니에요. 혹은 어려운 일 생각말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라가 아니죠. 자족은 단순히 속편하게 살아라? 생긴대로 살아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살아라? 하는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대상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소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시고, 돌보시고, 이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시는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분이 나를 그냥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게 하시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절대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만 자세히 살펴봐도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어요. 평강,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는 [살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은 ‘결합하다 to unite’ 입니다. 죄가 인류의 역사에 들어온 이후,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냥 살아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거죠. 그런데, 평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다시 결합해 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저희들을 엮어 주는 것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꾀꾀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두려움으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진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성 어거스틴.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

-토마스 왓슨. 의인(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된 자)은 죽을 때 "(영원한) 평강에 들어가지만" 살아 있을 때는 평강이 그에게 들어간다.

왜 우리는 평안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번째 대답은 너무 분주해서였다고 한다면, 두번째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을 그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질을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시는 것처럼, 평강을 바라 보신적 있으십니까? 당장 천불, 만불 때문에 발을 동동구르는 것처럼, 주님과 연합하고 있지 못함에 대하여 발을 동동굴러 본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 이상으로 평강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평안이 중요하십니까? (군대, 목사 준회원 인터뷰 때) 머리로는 ‘평안 중요하지, 있으면 좋지’ 생각은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의 평강을 간구합니다. 닫혀진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주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문제 앞에서면 주님의 평강보다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즉, 주님의 평안을 얻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5:27-32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들여다가 공회 앞과 대제사장 앞에 세웠을 때, 한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쾅쾅숨어지내던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스틴 마일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약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작곡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뒤에는 전업 음악 편집자가 되었어요. 마일즈의 취미는 사진이었구요, 그는 자신의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암실"을 만들 정도였습니다. 마일즈의 가장 유명한 노래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잘 아시죠?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를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찬양을 하루 밤사이에 작시하고 작곡했는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1912년 3월의 어느 날, 나는 암실에 앉아 사진 장비와 오르간을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안에서 성경을 펼쳤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을 펼쳤다.-이것이 우연인지 영감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라. 거기에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다. 그날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그 장면의 일부인 것 같았다. 나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라보니!”라고 외쳤던 그 드라마틱한 순간을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색 벽을 바라보는 동안 내 손은 성경 위에 놓여있었다. 빛이 희미해지면서 나는 정원 입구에 서서 올리브 가지로 그늘진 완만하게 구불구불한 길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흰 옷을 입은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목을 꼭 움켜쥐고 흐느끼는 것을 막으려는 듯 천천히 그림자 속으로 걸어갔다.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녀는 무덤에 이르자 몸을 굽혀 들여다보고 서둘러 갔다.

옷을 휘날리며 달려온 사도 요한이 무덤을 바라보며 나타났다. 그 때에 베드로가 뒤 따라와서는 무덤에 들어가고 요한이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떠날 때 마리아는 무덤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몸을 돌렸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고 나도 그랬다. 나는 그분이신 줄 알았다. 그녀는 팔을 짝 뻗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랍보니!”라고 외쳤다.

나는 긴장된 근육과 떨리는 신경으로 성경을 쥐고 완전한 빛 속에서 환상에서 깨어났다. 이 환상의 영감을 받아 나는 그 자리에서 시를 써내려갔다. 그날 저녁 나는 음악 또한 마칠 수 있었다. [Carlton R. Young, “In the Garden,” Companion to the United Methodist Hymnal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p. 432.]

그는 경건하게 생각했다. "이것은 거의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에 국한된 경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첫번째는 바로 평강입니다! 두번째도 평강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살아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러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